



“정말이지 이 수험생 기간은 공부의 희열과 역할수행의 갈등이 매일같이 벌어지던 매우 힘겹고도 보람찼던 시기였습니다.”

전 병 우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제23기, 대교 R-project 실행본부상무)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교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전병우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겨울에 협회지에 합격수기를 쓰려고 하니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밤낮으로 공부했던 수험시절이 절로 생각이 납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만큼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번 경영지도사 시험을 치르며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매서웠던 IMF의 바람을 견디고 98년 10월 회사 임원으로 발탁된 뒤 인천본부장, 대전본부장, 광주본부장, 전남본부장을 약 10년 동안 역임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한 후에 2008년 2월 프로젝트 매니저로 회사의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컨설팅협회에서 교육하는 국제경영컨설팅트를 2007년 8월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안정된 삶이 있는 상황에서 생소했던 컨설팅을 공부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경영컨설팅협회협의회 인증 국제경영컨설팅트는 국제공인 전문경영컨설팅트로서 기업의 경영전략, 재무, 생산, 인적자원, 마케팅, 정보기술 등의 개별분야에서 기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업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시절에 경영지도사라는 전문 직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으며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과목들을 접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공부를 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되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격시험 준비를 하면서 한두 가지

문제는 생기는 지라 응시분야 과목의 기초이론 및 용어 등을 정리를 하고 2008년 2월에 사설학원에서 2차 시험을 대비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유인물 위주의 단답식 학습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2차 시험 대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기본서적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기본서적은 목차중심으로 중요이론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기본서적을 읽은 탓에 각 서적마다 다소 이론이 다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원서를 참고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영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요약 정리된 서적이거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 분야의 기초이론의 이해를 높이고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등 응시과목에 대하여 폭넓은 기본지식의 내공을 높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종시험 합격은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마케팅 용어를 키워드중심으로 정리 하여 사전 편집방법으로 용어정리 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Story telling 형식으로 반복해서 학습에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도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험생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험생의 자리는 물론 직장에서의 임원이라는 자리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라는 자리 모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만큼 없는 시간을



쫓개고 쫓개서 공부한 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프로젝트 관계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 곧바로 집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한 시간을 하더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도서관 폐관시간인 10시까지 공부를 한 후 집에 돌아와서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후회가 더 큰 법인지라 새벽 1시까지 홀로 책과 씨름을 한 후에야 가까스로 침대에 들어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하고도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 출근 직적인 9시까지 어제 학습한 내용을 다시 들여다 보고 나서야 가뿐히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돌아오는 주말은 기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공부를 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만큼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속상함이 함께 밀려올 때 마다 딸아이와 아내의 용원에 힘입어 더욱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왕 시작했으니 끝은 봐야지"라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주말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모자랐던 부분을 하나 씩 채워갈 때마다 드는 희열도 있었지만 홀로 도서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내 자신이 안쓰럽기도 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답이 맞아 떨어져 내 실력이 한눈에 보이는 단답식이 아니라, 논술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도 힘든 수험생활을 더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일한 취미였던 주말 등산을 포기하면서, 직원들과의 회식자리를 거절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의 스트레스도 점점 높아만 갔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저를 옥죄어 오는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마음에 남는 일은 역시 가족과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해 여름에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해외로 출장가본 적은 많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간 적은 없었기도 했고, 그동안 공부한답시고 가족에게 소홀한 것 같아

큰마음을 먹고 일본 여행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일 년에 한 번 있는 9일간의 휴가가 제게는 어찌 그리 짧아 보이던지. 본래에는 3박 4일의 여행을 다녀온 후 나머지 기간 동안 공부를 할 계획이었지만 여행 출발일이 점점 다가오자 저는 결국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들떠있던 가족들마저 여행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를 두고 다녀오라고 했지요. 아내와 딸들이 떠난 9일은 사실 이번 국가자격인 경영지도사자격 최종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퇴근 후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공부했던 나였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내 시간이었던 그 기간의 공부량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 수험생 기간은 공부의 희열과 역할수행의 갈등이 매일같이 벌어지던 매우 힘겹고도 보람찼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경영 지도사의 길을 들어선 지금에 있어서는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왜 경영지도사는 수험서가 없는 것일까 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경험에 비추어봐 앞으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위해 열심히 매진할 후배들을 위하여 수험서를 발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경영지도사이면서, PMP(P)와 국제공인컨설턴트(CMC)로서 한국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마케터로서의 내역 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프로젝트경영전문가(PMP(P))로서 습득한 틀을 경영지도사의 업무에 접목하여 지도사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며, 또한 국제적인 업무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해 국제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국제컨설턴트로서의 비전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계절입니다. 저의 또 다른 도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 진행형 도전이 모두 성공의 열매를 맺기를 기원하며, 23기 동기여러분 몸도 잘 추스르시고 마음의 열정도 잘 추스를 줄이는 경영 지도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